

북한의 통계데이터와 북한경제 연구

최지영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choijy@bok.or.kr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실험이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 현상의 인과성을 이해하고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지표를 이용한다. 경제 현상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경제학 분야에서는 통계지표의 이용이 더욱 필수적이다. 경제학 일반의 접근방식은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인과성을 검토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경제통계 지표의 변화를 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여, 향후 진행될 경제 현상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현황 파악과 예측을 토대로 우리는 경제 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개입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국민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가용한 통계의 부족은 현황 파악과 예측을 어렵게 하여 정책 판단의 오류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북한경제 연구가 늘 직면하는 문제이다.

북한과 관련된 경제통계의 종류는 크게 공식발표된 통계와 외부기관의 추정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계라고 할 수 없지만 북한의 경제통계를 보정하거나 추정한 학술적 연구 결과물들이 있다. 이러한 경제통계들은 종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존재하는 통계들조차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낮아 분석에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통계들이 대부분이며, 적시성이 매우 낮아 북한경제의 현황을 판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가 많지 않다.

〈표 1〉은 국민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 경제지표들 가운데,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추정치, 연구 결과물들의 유무를 비교한 것인데, 현재 가용한 통계로는 북한경제와 관련된 국민계정을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민계정의 경우, 국민소득통계도 현재 생산 측면에서만 추정되고 있으며 기관별 추정방법에 따라 GDP 규모가 상이하게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제수지와 관련해서도 상품무역통계만이 상대국의 수출입 자료를 역으로 해석하는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의해 추정되고 있을 뿐이며,

국제수지에 해당하는 외화수급과 관련해서는 학술적 연구 결과(장형수[2013])가 유일하다.

한편, 이렇게 절대적으로 제한된 통계의 가용성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높다고 할 수 없다. 국민소득통계의 경우 추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추정치의 수준과 추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상품무역통계의 경우, 북한의 경제통계 가운데 가장 풍부하고 신뢰도가 높은 통계이나 거울통계방식으로 추정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무역상대국이 남한과 북한을 혼동하여 남한과의 무역을 북한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가 무역통계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북한 무역통계의 문제는 이석 외(2010)를 통해 제기된 바 있으며, 동 연구의 경우 이를 보정하여 상품무역통계 자체의 재구성을 시도한 바 있다. 외부기관에 의한 추정치가 아니라 학술적 연구 결과물들의 경우, 역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비교적 강한 가정을 도입한 경우가 많아 추정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관표 추정과 통화량 규모 추정에 관련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연관표 추정의 경우 북한과 경제구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 동독, 베트남의 투입산출표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결과들이다. 또한 북한의 통화량 규모를 추정한 연구는 동유럽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득유통 속도를 적용하였다. 2009년 이후 제공되고 있는 데일리 NK(북한 장마당 동향)의 시장 쌀가격과 시장환율 자료는 무역통계와 함께 적시성이 높은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시장물가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시장 쌀가격은 북한의 소비자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대리변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쌀은 저장기술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변동이 심한 품목이며, 식량부족국가에서는 상대가격 수준이 높을 수 있다. 노동인구의 경우 유엔인구기금과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두 차례 공동으로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으로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고, 인구센서스 조사에서는 공식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만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구센서스의 노동인구 수를 모두 취업자 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재정통계의 경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년 대비 증감 규모를 발표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예산수입 및 지출구조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표 1〉 국민경제의 일반적 경제지표

부문	종류	북한 관련 경제통계*
국민경제	국민소득통계	· 한국은행, 유엔, CIA 추정치(생산 측면)
	산업연관표	· Noland <i>et al.</i> (2000), 신동천(2004), 최지영(2014) 등
	자금순환표	· 없음
	국제수지표	· 상품무역통계(UNCOMTRADE, IMF, World Trade Atlas, 중국해관통계), 남북교역통계(통일부) · 외화수급 추정치(강형수[2013])
	국제투자대조표	· 없음
통화금융	통화지표	· 통화량 규모 추정치(한국은행 조사국[1998])
	금리지표	· 없음
	증권시장통계	· 없음
물가/국제거래	물가지수	· 시장 쌀가격(데일리 NK)
	무역지수/교역조건지수	· 없음
	환율	· 공식환율, 비공식(시장)환율(데일리 NK)
경기/고용/재정	경기판단지표	· 없음
	고용 및 임금통계	· 노동인구(유엔인구센서스, 1993년, 2008년)
	기업경영분석통계	· 없음
	재정통계	· 북한 발표 예산

주: 북한 관련 경제통계의 경우, 통계, 추정치, 학술적 연구 결과를 모두 포함하였음.

북한의 경제통계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북한경제 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경제 연구를 크게 두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북한 경제의 현황 파악과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북한경제 통계의 한계가 북한경제 현황 파악과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북한경제 통계의 적시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문제는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한 상황 판단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현재 가장 적시성이 높은 자료는 북한 시장의 쌀가격과 시장 환율 자료, 중국 해관통계 자료이며,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파악한다. 이 자료들은 월별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대략 한 달 정도 늦게 입수되는 편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현황 파악과 상황판단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경제 통계의 가용성과 신뢰성 저하로 인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관찰자의 견해가 통계지표와 괴리되는 경우 통계지표 자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비교적 오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북한경제와 관련된 물적지표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추정치가 신뢰할 만하다는 연구 결과(김병연[2014])가 제시되기도 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제기는 주로 국경지역

이나 평양지역을 방문한 외부관찰자의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체감경기, 일부 경제 현상에 대한 관찰은 총산출과 관련된 물적 지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경제 통계의 종류가 절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경제 연구는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의 경우 탈북자 그룹의 지역적, 계층적 편향성이 높아 대표성 문제가 있다. 또한 탈북자 설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주로 탈북 직전 북한경제의 상황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역시 높으며, 주로 가계의 소득 및 지출,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남북한 경제통합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남한과 관련된 경제통계는 풍부한 반면, 북한과 관련된 경제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과 관련해서는 강한 가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관련한 연구들은 통일 이후 북한의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총투자 규모, 통일비용 규모 등을 추정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남북한경제를 일반균형모형으로 구축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모형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수(parameter)들이 필요한데, 북한과 관련한 모수들은 모두 다른 국가들의 경제통계들을 참고하여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들의 추정 결과는 모형구축에 필요한 모수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에 도입된 가정이 북한경제의 상황과 매우 괴리된 경우 잘못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은 강한 정책적 시사점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경제 통계의 절대적 부족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북한경제 통계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의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북한과 관련된 통계의 입수 경로가 확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경제 연구자로서 필자는 다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술적 연구 차원에서 기본적인 북한경제 통계 추정치를 제시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문 간 교차검증 및 북한과 유사한 경제여건을 갖춘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북한경제 통계의 오류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 통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지적한 문제들을 후속연구들이 검증하거나, 이를 감안하여 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f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1995.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 Noland, M., S. Robinson, and T. Wang, "Rigorous Speculation: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orld Development*, 28(10), 2000, pp.1767~1787.
-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3.
- 김병연,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통계를 이용한 북한경제이해』, 한국은행, 2014.
- 신동천,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과」, 『응용경제』, 제6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4, pp.69~90.
- 이석·이재호·김석진·최수영,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연구보고서, 2010-07, 한국개발연구원, 2010.
- 최지영,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에 대한 연구」, 『통계를 이용한 북한경제이해』, 한국은행, 2014.
-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 통화량 규모의 추정과 남북한 통화통합시 교환비율 시산」, 1998.
- DailyNK, 장마당 동향(<http://www.dailynk.com>)